GLOBAL
EQUITY

2026. 4. 20

금융/소비재팀

김재우 팀장
jaewoo79.kim@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은행

미국 은행 1Q26 실적: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모신용 우려, 은행의 기초체력을 흔들 수 없다!

- 1Q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견조한 개선세를 시현. NII (순이자이익) 성장과 Credit cost 안정화와 더불어 높은 증시 변동으로 CIB부문이 실적 개선 견인.
- 사모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은행들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며 영향 미미할 것으로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은 견조한 경제가 모두 흡수하고 있음을 강조.
- 미국 은행들의 26년 컨센서스는 여전히 견조한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시사. 즉,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국면 도래 시, 펀더멘털 및 주주환원 개선 여력에 초점 필요.

WHAT'S THE STORY?

미국 주요 은행 1Q 실적 – 높은 증시 변동성이 실적 개선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 주요 은행들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 개선세를 지속.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의 합산 기준 1Q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2.8% 상회하였고, 이익 및 EPS는 각각 8.1% 및 7.6% 상회. 특히, 이들 은행의 합산 기준 1) 매출액은 9.6% y-y, 9.0% q-q 증가하였고, 2) 당기순이익은 16.7% y-y, 24.1% q-q 급증하였음.

실적 내용도 양호 – 사이클 개선을 시사: 은행들의 1Q 실적은 내용적인 측면도 양호. 1) 대출 및 수신 성장률이 견조한 가운데, 2) NIM 방어가 이자이익 성장을 견인하였고, 3) 높은 시장 변동성은 비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으며, 4)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이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매크로 우려 불구, 총 충당금 적립액은 전분기는 물론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Credit cost 사이클의 Peak out에 대한 기대를 높인 것으로 생각.

자본비율 하락 지속 – 주주환원 강화 + 여신성장: 5개 은행들의 CET-1 비율은 전분기 대비 평균 0.3%p 하락. 높은 주주환원율 및 RWA의 고성장(7.7% y-y)에 기인. 1Q 중 주주 환원 규모를 발표한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평균적으로 94.0%를 기록하며 상승세 지속.

사모신용 관련 건전성 리스크 – 은행들의 답변은 "영향 미미할 것": 은행들은 사모신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결론적으로 은행들은 사모신용 리스크가 실제 실적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언급. 이는 1) 관련 익스포져가 작은 것은 물론, 2) 이에 대한 담보설정, 한도 관리, 제3자를 통한 리스크 크로스 체크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

중동발 리스크 관련 실질 영향 제한적 전망 시사: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관련 은행들은 미국의 경제 기반은 튼튼하고, 이러한 추세는 3월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언급. 특히, 유류 관련 소비가 3% 가계 소비의 수준으로 낮은 가운데, 유가 상승 여파를 현재의 견조한 경제가 충분히 흡수하고 있음을 강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I. 미국 주요 은행 1Q26 실적 Review
- 높은 증시 변동성이 실적 개선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 주요 은행 1Q 실적 컨센서스 상회

미국 주요 은행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Q 실적을 발표.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JP Morgan, Bank of America, Citi Group, Wells Fargo, PNC Financial)의 합산 기준 1Q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2.8% 상회하였고, 이익 및 EPS는 각각 8.1% 및 7.6% 상회.

특히,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전분기는 물론 전년동기대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점에 주목 필요. 이들 은행의 합산 기준 1) 매출액은 9.6% y-y, 9.0% q-q 증가하였고, 2) 당기순이익은 16.7% y-y, 24.1% q-q 급증하였음. 은행들 전반적으로 견조한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Citigroup의 매출 및 이익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 가능.

은행들의 1Q 실적은 내용적인 측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1) 대출 및 수신 성장률이 견조한 가운데, 2) NIM 방어가 이자이익 성장을 견인하였고, 3) 높은 시장 변동성은 비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으며, 4)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이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매크로 우려 불구, 총 충당금 적립액은 전분기는 물론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Credit cost 사이클의 Peak out에 대한 기대를 높인 것으로 생각.

은행별 매출액 vs 컨센서스

(백만 달러)	매출액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49,836	48,491	2.8
Bank of America	30,272	28,631	5.7
Citigroup	24,633	23,713	3.9
Wells Fargo	21,446	21,757	(1.4)
PNC Financial	6,165	6,198	(0.5)
합계	132,352	128,789	2.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순이익 vs 컨센서스

(백만 달러)	순이익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16,494	15,236	8.3
Bank of America	8,584	7,912	8.5
Citigroup	5,785	4,945	17.0
Wells Fargo	5,253	5,262	(0.2)
PNC Financial	1,760	1,695	3.8
합계	37,876	35,049	8.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EPS vs 컨센서스

(달러)	EPS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5.94	5.41	9.8
Bank of America	1.11	1.01	9.9
Citigroup	3.06	2.66	15.0
Wells Fargo	1.60	1.59	0.6
PNC Financial	4.14	4.05	2.1
합계	15.85	14.72	7.6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매출액

(백만 달러)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41,934	50,200	42,654	42,768	45,310	44,912	46,427	45,798	49,836	8.8	10.0
Bank of America	26,863	26,305	26,213	26,475	28,247	27,443	29,040	28,367	30,272	6.7	7.2
Citigroup	21,104	20,139	20,209	19,519	21,596	21,668	22,090	19,871	24,633	24.0	14.1
Wells Fargo	20,863	20,689	20,366	20,378	20,149	20,822	21,436	21,292	21,446	0.7	6.4
PNC Financial	5,145	5,411	5,432	5,567	5,452	5,661	5,915	6,071	6,165	1.5	13.1
합계	115,909	122,744	114,874	114,707	120,754	120,506	124,908	121,399	132,352	9.0	9.6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당기순이익

(백만 달러)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13,419	18,149	12,898	14,005	14,643	14,987	14,393	13,025	16,494	26.6	12.6
Bank of America	6,653	6,803	6,711	6,806	7,360	7,170	8,332	7,647	8,584	12.3	16.6
Citigroup	3,371	3,217	3,238	2,856	4,064	4,019	3,752	2,471	5,785	134.1	42.3
Wells Fargo	4,619	4,910	5,114	5,079	4,894	5,494	5,589	5,361	5,253	(2.0)	7.3
PNC Financial	1,344	1,477	1,490	1,610	1,481	1,627	1,808	2,020	1,760	(12.9)	18.8
합계	29,406	34,556	29,451	30,356	32,442	33,297	33,874	30,524	37,876	24.1	16.7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1. NII (순이자이익) 증가 폭 확대 – 연말로 갈수록 확대는 26년에 대한 기대로

은행들의 순이자이익은 1Q 중 9.3% y-y 증가하며 4Q 8.5% y-y대비 개선. 특히, 25년 하반기부터 이자이익 증가세가 가속화된 가운데, 1Q 중 calendar days가 4Q대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0.6% q-q 증가한 점은 이자이익 사이클의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즉, 당초 은행들이 제시했던 올해 이자이익 증가 가이던스 6.5%에 대한 가시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 (vs 25년 5.0% 증가).

한편, PNC Financial은 First Bank를 1월 6일 인수 완료함에 따라 관련 대출과 예금,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이익이 반영. 참고로 First Bank 인수에 따른 영향은 1) 대출 155억 달러로 4Q25대비 4.7%, 2) 예금은 219억 달러로 4Q25대비 5.0% 증가를 의미.

이자이익을 견인한 NIM 및 대출성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부터 후술.

은행별 순이자이익

(백만 달러)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23,082	22,746	23,405	23,350	23,273	23,209	23,966	24,995	25,366	1.5	9.0
Bank of America	14,032	13,702	13,967	14,359	14,443	14,670	15,233	15,750	15,745	(0.0)	9.0
Citigroup	13,507	13,493	13,362	13,733	14,012	15,175	14,940	15,665	15,741	0.5	12.3
Wells Fargo	12,227	11,923	11,690	11,836	11,495	11,708	11,950	12,331	12,096	(1.9)	5.2
PNC Financial	3,264	3,302	3,410	3,523	3,476	3,555	3,648	3,731	3,961	6.2	14.0
합계	66,112	65,166	65,834	66,801	66,699	68,317	69,737	72,472	72,909	0.6	9.3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25년 NII 및 26년 가이던스

(십억 달러)	25년 이자이익	24년 이자이익	YoY (%)	26년 가이던스	YoY (%)
JP Morgan	95.4	92.6	3.1	103.0	8.0
Bank of America	60.1	56.1	7.2	64.9	8.0
Citigroup	59.8	54.1	10.5	63.4	6.0
Wells Fargo	47.5	47.7	(0.4)	50.0	5.3
PNC Fiancial	14.4	13.5	6.7	16.5	14.5
합계	277.2	263.9	5.0	297.8	7.4

참고:26년 가이던스는 최대값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PNC Financial의 First Bank 인수 영향

(십억달러, %)						
대출	4Q25	First Bank 인수	C&I	CRE	소매금융	1Q26
	331.5	15.5	15.1	0.1	(1.2)	360.9
	vs 4Q25	4.7	4.6	0.0	(0.4)	8.9
예금	4Q25	First Bank 인수	Brokered CD	개인	법인	1Q26
	439.5	21.9	(3.5)	3.3	(2.8)	458.4
	vs 4Q25	5.0	(1.1)	1.0	(0.8)	4.3

자료: PNC Financial

시사점 2. NIM은 q-q 하락 –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모두 하락세

1Q 중 은행들의 NIM은 대체적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 JP Morgan, BofA, Citi 등은 1~4bp q-q NIM 하락세를 시현. 4Q 중 이들 은행의 NIM이 7~9bp q-q 상승한 이후 일부 하락한 것.

하지만, 은행의 NIM의 안정적 관리 혹은 개선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판단. 이는 1) 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2) 이들 은행의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NIS는 오히려 개선 (BofA와 Citi는 모두 각각 5bp q-q 상승)되었고, 3) 향후 만기 도래 저금리 자산의 고금리 자산으로 차환에 따른 Re-pricing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실제로, 이들 은행의 만기보유 증권(HTM Securities)은 1Q에도 3.2% y-y 감소.

한편, 은행들의 예금 잔액은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 5대 은행 기준 예금 잔액은 7.7% y-y, 1.8% q-q 증가하였음. 은행으로의 수신 유입은 전분기와 유사하게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 성장 한도 규제가 해제된 Wells Fargo의 수신은 4.3% q-q, 9.4% y-y 성장하며 자산 성장 속도가 전분기대비 추가적으로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

은행별 NIM, 운용 금리, 조달 금리 추이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bps)	YoY (bps)
JP Morgan											
NIM	2.71	2.62	2.58	2.61	2.58	2.43	2.45	2.54	2.50	(4)	(8)
운용 금리	5.55	5.57	5.55	5.31	5.19	5.04	5.05	4.95	4.83	(12)	(36)
조달 금리	3.59	3.67	3.68	3.36	3.17	3.15	3.13	2.94	2.82	(12)	(35)
Bank of America											
NIM	1.99	1.93	1.92	1.97	1.99	1.94	2.01	2.08	2.07	(1)	8
운용 금리	5.12	5.15	5.14	4.91	4.67	4.60	4.64	4.50	4.38	(12)	(29)
조달 금리	4.10	4.20	4.17	3.82	3.47	3.43	3.40	3.17	3.00	(17)	(47)
Citigroup											
NIM	2.42	2.41	2.33	2.42	2.47	2.51	2.40	2.49	2.46	(3)	(1)
운용 금리	6.48	6.42	6.36	6.22	5.92	5.93	5.89	5.81	5.55	(26)	(37)
조달 금리	5.01	4.96	4.99	4.64	4.26	4.17	4.26	4.06	3.75	(31)	(51)
Wells Fargo											
NIM	2.81	2.75	2.67	2.70	2.67	2.68	2.61	2.60	2.47	(13)	(20)
운용 금리	5.24	5.25	5.24	5.02	4.85	4.87	4.88	4.75	4.58	(17)	(27)
조달 금리	3.22	3.31	3.43	3.12	2.92	2.89	2.94	2.76	2.66	(10)	(26)
PNC Financial											
NIM	2.57	2.60	2.64	2.75	2.78	2.80	2.79	2.84	2.95	11	17
운용 금리	5.08	5.13	5.25	5.04	4.90	4.93	4.99	4.86	4.80	(6)	(10)
조달 금리	3.24	3.26	3.34	2.95	2.72	2.74	2.81	2.59	2.37	(22)	(35)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조달 금리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bps)	YoY (bps)
JP Morgan	3.59	3.67	3.68	3.36	3.17	3.15	3.13	2.94	2.82	(12)	(35)
Bank of America	4.10	4.20	4.17	3.82	3.47	3.43	3.40	3.17	3.00	(17)	(47)
Citigroup	5.01	4.96	4.99	4.64	4.26	4.17	4.26	4.06	3.75	(31)	(51)
Wells Fargo	3.22	3.31	3.43	3.12	2.92	2.89	2.94	2.76	2.66	(10)	(26)
PNC Financial	3.24	3.26	3.34	2.95	2.72	2.74	2.81	2.59	2.37	(22)	(35)
평균	3.83	3.88	3.92	3.58	3.31	3.28	3.31	3.10	2.92	(18)	(39)
%p q-q	0.10	0.05	0.04	(0.34)	(0.27)	(0.03)	0.03	(0.20)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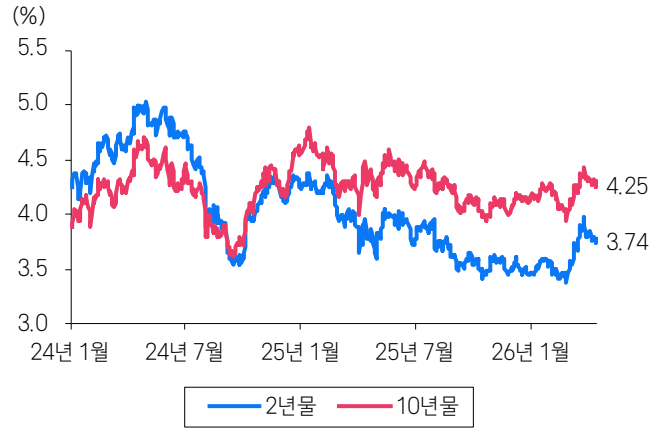
참고: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이자부예금 잔액 추이

(십억 달러)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1,726.1	1,722.9	1,749.4	1,793.3	1,842.9	1,902.3	1,914.0	1,949.0	1,991.6	2.2	8.1
Bank of America	1,386.9	1,396.3	1,413.7	1,445.7	1,448.0	1,460.0	1,478.7	1,491.6	1,490.6	(0.1)	2.9
Citigroup	1,132.2	1,108.7	1,109.1	1,116.5	1,103.8	1,139.0	1,180.4	1,218.3	1,236.3	1.5	12.0
Wells Fargo	996.9	1,006.8	986.2	984.4	972.9	970.7	984.2	1,020.5	1,064.0	4.3	9.4
PNC Financial	321.3	320.9	326.3	329.1	328.3	329.8	339.1	344.7	359.3	4.2	9.4
합계	5,563.3	5,555.6	5,584.6	5,669.1	5,695.8	5,801.8	5,896.3	6,024.1	6,141.8	2.0	7.8
JP Morgan 제외	3,837.2	3,832.8	3,835.3	3,875.8	3,852.9	3,899.5	3,982.4	4,075.1	4,150.2	1.8	7.7

참고: 분기 평균 잔액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년 vs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HTM 잔액 추이

(십억 달러)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265.1	260.6	293.4	270.1	272.1	0.7	2.7
Bank of America	550.7	541.3	531.4	522.7	514.7	(1.5)	(6.5)
Citigroup	220.4	206.1	197.1	189.8	178.5	(6.0)	(19.0)
Wells Fargo	227.2	221.5	214.2	208.0	204.1	(1.9)	(10.2)
PNC Financial	74.5	75.2	73.2	70.1	72.0	2.8	(3.2)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시사점 3. 대출 성장률 – 성장 지속 긍정적이나 여전히 자본시장 중심 성장세 지속

1Q 중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추가적으로 상승. 5개 은행 합산 기준 1Q 대출성장률은 9.9% y-y, 2.7% q-q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분기 성장률 7.4% y-y, 2.3% q-q보다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 즉, 연초에도 대출 성장률 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올해 연간 이자이익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 제고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1Q에도 대출 성장은 여전히 소매금융보다는 CIB 및 WM 부문이 견인. JP Morgan은 극단적인데, 동사의 1Q 대출 성장 중 1) 소매금융 대출은 오히려 105억 달러 감소하였고, 2) CIB가 197억 달러, WM이 85억 달러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 BofA는 1) 가계보다는 기업 부문이, 2) C&I보다는 자본시장 관련 Global Market 부문에서, 그리고 3) WM 부문에서 고객들의 투자 등의 수요에 따른 대출 성장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1Q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이는 현재 은행을 둘러싼 신용 환경이 여전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 즉, 1)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및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가계 혹은 중소기업 부문의 대출 성장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 3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오히려 시중금리 상승 및 물가상승률 우려까지 겹치며 소매금융 부문의 대출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 이러한 가운데, 3)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며 CIB부문과 관련된 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은행들은 소매금융 대신 자본시장 관련 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 가능.

한편, BofA의 경우, 동사 C&I 부문에서 일부 대출 회복이 확인. 다만,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기업들이 Credit line (여신 한도) 중 25년 말 상환한 부분을 연초 재차 활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 물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기업들이 연초부터 운전자본 축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결국 향후 매크로 환경 개선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대출 성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다만,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 및 이에 따른 여파 확인임을 시사. 올해 FED의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하는 가계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기 회복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 개선을 야기 가능. 그러나, 3월부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거나, 혹은 이로 인한 고유가 환경 및 인플레이션 환경이 우려대비 장기화 및 악화될 경우, 은행들의 대출 태도 개선은 물론 대출 수요 회복까지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한편, 4Q 중 Wells Fargo는 Asset cap, 즉 자산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대출 성장률 4.2% q-q, 9.7% y-y를 기록, 빠르게 다른 은행들의 성장률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1Q 말 대출 말잔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

은행별 대출 잔액 추이

(십억 달러)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1,311.6	1,313.1	1,325.4	1,339.4	1,339.4	1,380.7	1,417.5	1,461.1	1,486.1	1.7	11.0
Bank of America	1,047.9	1,051.5	1,059.7	1,081.0	1,093.7	1,128.5	1,153.0	1,170.9	1,189.5	1.6	8.8
Citigroup	678.8	679.6	686.5	688.0	690.7	712.2	725.0	737.0	755.2	2.5	9.3
Wells Fargo	928.1	917.0	910.3	906.4	908.2	916.7	928.7	955.8	996.0	4.2	9.7
PNC Financial	320.6	319.9	319.6	319.1	316.6	322.8	325.9	327.9	350.9	7.0	10.8
합계	4,286.9	4,281.1	4,301.5	4,333.8	4,348.7	4,460.8	4,550.1	4,652.8	4,777.8	2.7	9.9
JP Morgan 제외	2,975.3	2,968.0	2,976.1	2,994.4	3,009.3	3,080.1	3,132.7	3,191.7	3,291.6	3.1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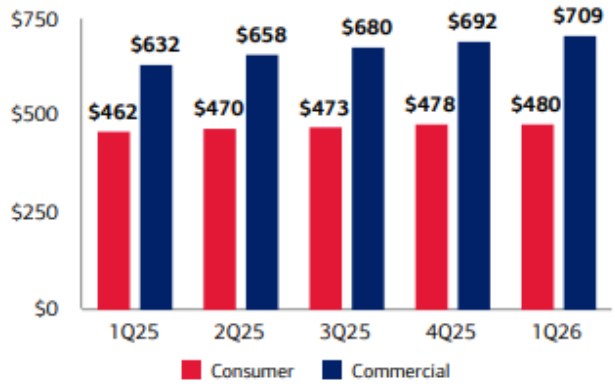
참고: 분기 평균 잔액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주요 은행 부문별 대출 분기 순증액

(십억 달러)	JP Morgan	Bank of America	Wells Fargo	PNC Financial
Retail Banking	(10.5)	(4.7)	0.6	14.0
CIB	19.7	14.1	8.0	8.9
WM	8.5	2.8	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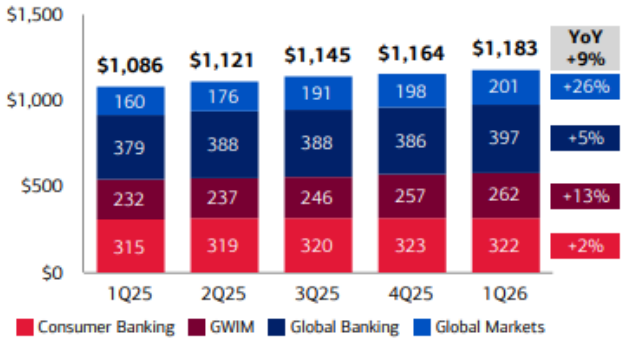
참고: BofA CIB는 Global Banking과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BofA – 부문별 대출 추이 (십억달러)



자료: BofA

BofA – 업종별 대출 추이 (십억달러)



자료: BofA

시사점 4. 대손 충당금 비용 부담 전분기대비 감소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용은 14.6% q-q, 7.7% y-y 감소. 전분기대비 감소 폭이 컸던 이유는 4Q25 중 JP Morgan의 애플카드 인수 관련 부담 22억달러의 일회성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즉, 실제 1Q26 충당금 부담은 3Q25 수준으로 되돌아간 모습.

은행들이 당초 언급하였던 대손 사이클의 개선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선 폭이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는 점은 아쉬운 부분. 실제로 Net charge-offs 금액은 2.3% y-y 감소했지만 1.2% q-q 증가. 더 나아가 3월부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은행들의 충당금 부담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추가적으로 지연 가능.

PNC Financial은 CRE 부문에 대한 디레버리징에서 Re-레버리징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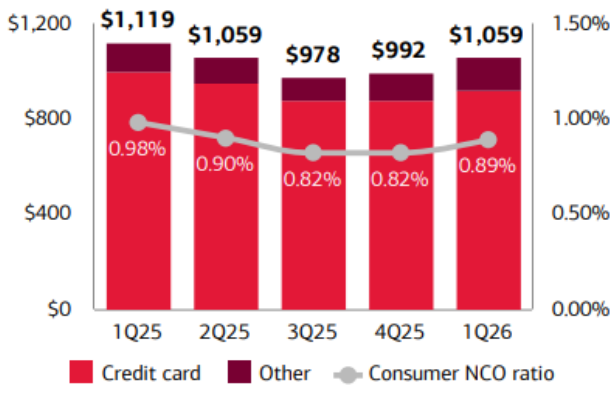
한편, CRE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치를 업데이트 해 온 BofA와 PNC Financial은 더 이상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이는 양사 모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한 가운데, CRE 관련 리스크가 더 이상 우려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 실제로 CRE와 관련하여 1) BofA는 1Q 중 Credit cost 개선의 이유가 신용카드 부문의 개선과 더불어 오피스 CRE 대출에 대한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2) PNC Financial은 오히려 CRE부문의 대출을 늘리기 시작하였음. PNC Financial의 CRE 대출 증가는 그간 부실자산의 정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가운데 CRE부문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

은행별 대손 충당금 추이

(백만 달러)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Net charge offs	1,956	2,231	2,087	2,364	2,332	2,410	2,593	2,514	2,316	(7.9)	(0.7)
Net reserve build	(72)	821	1,024	267	973	439	810	2,141	191	(91.1)	(80.4)
Total provisions	1,884	3,052	3,111	2,631	3,305	2,849	3,403	4,655	2,507	(46.1)	(24.1)
Bank of America											
Net charge offs	1,498	1,533	1,534	1,466	1,452	1,525	1,367	1,287	1,409	9.5	(3.0)
Net reserve build	(179)	(25)	8	(14)	28	67	(72)	21	(72)	n/a	n/a
Total provisions	1,319	1,508	1,542	1,452	1,480	1,592	1,295	1,308	1,337	2.2	(9.7)
Citigroup											
Net charge offs	2,303	2,283	2,172	2,242	2,459	2,234	2,214	2,190	2,208	0.8	(10.2)
Net reserve build	62	193	503	351	264	638	236	30	597	1,890.0	126.1
Total provisions	2,365	2,476	2,675	2,593	2,723	2,872	2,450	2,220	2,805	26.4	3.0
Wells Fargo											
Net charge offs	1,149	1,301	1,111	1,211	1,009	997	942	1,046	1,100	5.2	9.0
Net reserve build	(211)	(65)	(46)	(116)	(77)	8	(261)	(6)	35	n/a	n/a
Total provisions	938	1,236	1,065	1,095	932	1,005	681	1,040	1,135	9.1	21.8
PNC Financial											
Net charge offs	243	262	286	250	205	198	179	162	253	56.2	23.4
Net reserve build	(88)	(27)	(43)	(94)	14	56	(12)	(23)	(43)	n/a	n/a
Total provisions	155	235	243	156	219	254	167	139	210	51.1	(4.1)
합계											
Net charge offs	7,149	7,610	7,190	7,533	7,457	7,364	7,295	7,199	7,286	1.2	(2.3)
Net reserve build	(488)	897	1,446	394	1,202	1,208	701	2,163	708	(67.3)	(41.1)
Total provisions	6,661	8,507	8,636	7,927	8,659	8,572	7,996	9,362	7,994	(14.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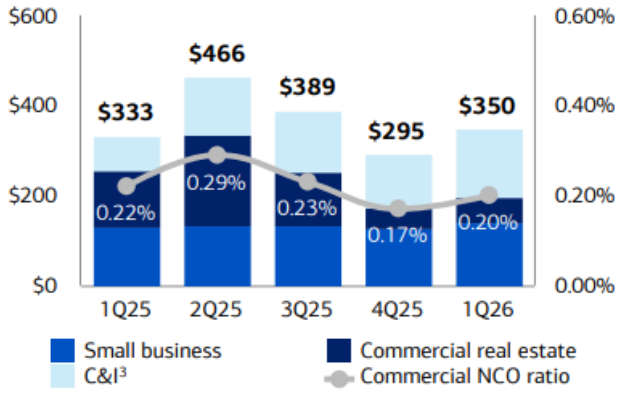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BofA 소매금융 NCO (백만 달러)



자료: Bank of America

BofA Commercial NCO (백만 달러)



자료: Bank of America

시사점 5. 리테일뱅킹 및 CIB 모두 개선된 가운데, CIB가 고성장 견인

1Q 리테일뱅킹과 CIB부문 모두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견조한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시현. 1) 리테일뱅킹과 CIB 부문 모두 매출액은 각각 8.1%, 16.3% y-y 증가하였고, 2) 순이익 또한 각각 15.7%, 21.2% y-y의 견조한 개선세를 시현.

특히, JP Morgan과 BofA의 CIB부문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음. 양사의 CIB 매출은 각각 18.9% 및 17.9% y-y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24.4%, 33.4% 성장하며 타사와의 차별화 확인.

이와 같은 CIB 부문의 실적 개선은 3월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트레이딩 부문 수익 급증에 기인. 일례로, JP Morgan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트레이딩 부문 수익을 기록하였고, Citigroup 또한 10년 만에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의 시장 부문 수익을 달성.

은행별 리테일뱅킹 매출 추이

(백만 달러)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18,313	18,847	19,473	19,396	19,568	0.9	6.9
Bank of America	10,493	10,813	11,166	11,201	11,049	(1.4)	5.3
Wells Fargo	8,913	9,228	9,650	9,571	9,998	4.5	12.2
PNC Financial	3,532	3,756	3,806	3,759	3,968	5.6	12.3
합계	41,251	42,644	44,095	43,927	44,583	1.5	8.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리테일뱅킹 순이익 추이

(백만 달러)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4,425	5,169	5,009	3,642	4,976	36.6	12.5
Bank of America	2,531	2,973	3,437	3,304	3,060	(7.4)	20.9
Wells Fargo	1,689	1,863	2,185	2,128	1,941	(8.8)	14.9
PNC Financial	1,121	1,359	1,324	1,241	1,320	6.4	17.8
합계	9,766	11,364	11,955	10,315	11,297	9.5	15.7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CIB 매출 추이

(백만 달러)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	19,666	19,535	19,878	19,375	23,379	20.7	18.9
Bank of America**	11,361	11,670	12,469	11,542	13,396	16.1	17.9
Wells Fargo	5,064	4,673	4,879	4,616	5,278	14.3	4.2
PNC Financial	2,630	2,720	2,909	3,066	2,982	(2.7)	13.4
합계	38,721	38,598	40,135	38,599	45,035	16.7	16.3

참고: *JP Morgan은 기존 Commercial Banking 및 CIB 부문 합산 기준
**Bank of America는 Global Banking,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CIB 순이익 추이

(백만 달러)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	YoY (%)
JP Morgan*	6,942	6,650	6,901	7,268	9,044	24.4	30.3
Bank of America**	3,862	3,227	3,773	3,070	4,094	33.4	6.0
Wells Fargo	1,941	1,737	1,966	1,639	1,809	10.4	(6.8)
PNC Financial	1,248	1,229	1,459	1,514	1,400	(7.5)	12.2
합계	13,993	12,843	14,099	13,491	16,347	21.2	16.8

참고: *JP Morgan은 기존 Commercial Banking 및 CIB 부문 합산 기준
**Bank of America는 Global Banking,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6. 자본비율 하락세 지속 – 주주 환원 강화와 여신 성장, 두 가지 가치의 추구

5개 은행들의 CET-1 비율은 전분기 대비 평균 0.3%p 하락. 은행들의 실적이 견조한 가운데, 높은 주주 환원율이 1Q에도 지속되었고, RWA 증가율이 7.7% y-y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

1Q 중 주주 환원 규모를 발표한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평균적으로 94.0%를 기록. 이는 23년 59.4%, 24년 71.9%, 25년 연간 92.0%에 이어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

은행들의 주주 환원 강화는 지속될 여지가 큰 것으로 예상. 1) 향후 자본비율 규제 완화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비율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고, 2) 은행들 또한 현재의 자본비율에서 최소 요구 기준에 소폭의 buffer를 감안한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낮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3) 소매금융 부문의 대출 회복이 다소 지연되는 만큼 환원에 대한 여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

참고 1. PNC Financial은 자본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RWA는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자본비율 규제는 여전히 제안 단계로 이를 상정한 운영은 다소 이르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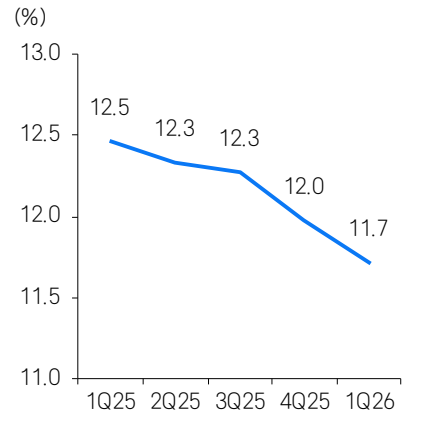
참고 2. Citigroup의 경우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25년대비 더 늘어날 것임을 실적 컨콜에서 공표.

5개 은행 주주 환원 Breakdown (1Q26)

(백만 달러)	총 주주 환원	배당	자사주 매입	당기순이익	주주환원율 (%)
JP Morgan	12,200	4,100	8,100	16,494	74.0
Bank of America	9,200	2,000	7,200	8,584	107.2
Citigroup	7,400	1,100	6,300	5,785	127.9
Wells Fargo	5,400	1,400	4,000	5,253	102.8
PNC Financial	1,400	700	700	1,760	79.5
합계	35,600	9,300	26,300	37,876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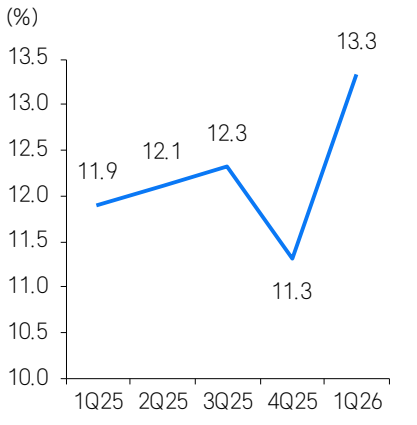
자료: 각 사,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평균 CET-1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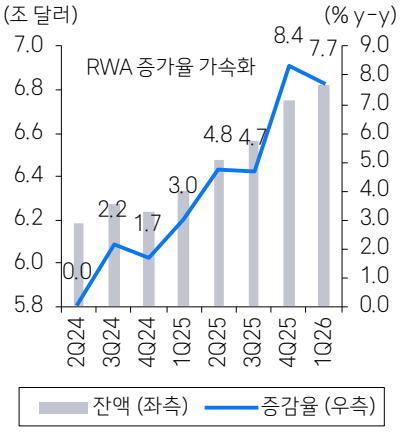
참고: 5개 은행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평균 ROE 추이



참고: 5개 은행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합산 RWA 추이



참고: 5개 은행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II. 실적 컨퍼런스 콜의 화두
– 사모신용 리스크와 중동發 지정학적 리스크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미 지나간 실적보다는 현재 산적해 있는 매크로 불확실성에 맞춰져 있었음. 이에 금번 실적 컨퍼런스에서 조명된 부문은 사모신용 리스크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여부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기 하강 리스크였음.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물론, 막연한 우려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은행들이 비관적 event 발생의 가능성을 축소했을 수도 있음. 다만, 이는 역으로 극단적인 우려의 전이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극단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사모신용에 대한 건전성 리스크 – 은행들의 답변은 "영향 미미할 것"

1Q 실적 컨퍼런스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는 사모신용. 은행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난 분기보다 더 상세하게 사모신용에 대한 구분 및 이에 대한 건전성 관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결론적으로 은행들은 사모신용 리스크가 실제 실적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언급. 이는 1) 관련 익스포져가 작은 것은 물론, 2) 이에 대한 담보설정, 한도 관리, 제3자를 통한 리스크 크로스 체크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

1. JP 모건 –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기능 훼손은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 저해 야기 가능

질문 1. 궁극적 손실 규모 및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실적 컨콜 Q&A 세션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는 1) 만약 리세션이 도래하고 이로 인해 부도가 전방위적으로 증가할 경우, 은행이 입게 되는 궁극적인 손실 규모와 2) 사모신용에 대한 부도 사이클이 도래할 경우 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이었음.

이에 대해 다이먼 회장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손실 또한 미미할 것으로 언급. 분명 사모신용 이외의 부문에서도 대출 언더라이팅에 있어 취약점이 존재하는 만큼 건전성 악화 사이클로 접어들 경우 손실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언급. 즉, 은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모신용 시장의 손실이 상당히 거대해야 하며, 이는 은행으로 손실이 넘어오기 이전에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 즉, 현재의 사모신용 리스크가 갑자기 은행으로 전이되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음을 의미.

다이먼 회장은 오히려 대손 사이클의 전반적인 악화가 더 우려되는 부분이라 언급. 다만, 이 또한 실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언급. 이는 현재 미국의 부채 문제는 정부 부채에 있는 것으로, 가계와 기업은 정부와 달리 모두 부채 수준이 낮기 때문.

질문 2. 사모신용 대출의 담보와 스프레드 및 현재 추이

사모신용 대출 중 일부를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지와 더불어, 담보 안전성 및 관련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다이먼 회장이 직접 답변하였음.

우선 일부 익스포져는 은행들이 사모신용을 대체하며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다만, 이 경우 은행들은 개별 대출에 있어 보다 다각도로 상황을 검토한 후 대출을 취급하게 될 것. 현재 사모신용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은행이 기존에 해왔던 middle-market 레버리지 대출. 은행들은 통상 이러한 대출을 취급할 때, 개별 대출의 수익성과 리스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대출을 접근. 즉, 해당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수거래, 가령 결제, 수탁, 다양한 타입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부터의 수익 및 리스크 전반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됨.

한편,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은행들은 대출의 기초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즉, 지속적으로 해당 여신의 담보에 대한 시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추가 담보 요구 등의 대응이 수반됨.

다만, 시스템 리스크가 낮다고 해서 현재 사모신용 시장 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 또한 모두 양호하다고 할 수 없음. 즉, 일부 참여자들의 성과는 예상과 달리 좋지 않을 것이며, 기존 사모신용이 담당하던 비즈니스 중 일부는 다시 은행이 취급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질문 3. JP Morgan의 사모신용 규모 및 리스크

동사의 CFO에 따르면, NBFI 즉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은 총 3,300억 달러이며, 이 중 1,600억 달러가 Core-NBFI 여신. 이 중 500억 달러가 사모신용으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레버리지 대출이나 BDC 대출 등이 이에 포함. 다만, 현재 우려되고 있는 레버리지 대출 등 리스크가 높은 여신과 관련해서 JP Morgan의 총 익스포져는 500억 달러 수준으로, 동사의 총 자산 4.9조 달러에 비하면 1.0%로 미미함.

2. Citigroup – 규모도 미미하지만 동사의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리스크 관리 역량에 초점

Citigroup 또한 사모신용 리스크 질문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하는 장표를 공개함과 동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세 가지 측면을 들어 설명.

첫째, Citi는 위험 선호도에 대해 강도 높은 framework를 적용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고객은 최상위급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 및 자산운용사로, 이들 기업은 재무상태가 양호함은 물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도 탁월함. 더 나아가, 동사와 기업 고객간의 관계는 단순히 단일 상품 판매 관계가 아님. 즉,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관계가 여러 해를 거쳐 구축된 만큼, 동사의 여신 고객에 대한 신뢰도는 높을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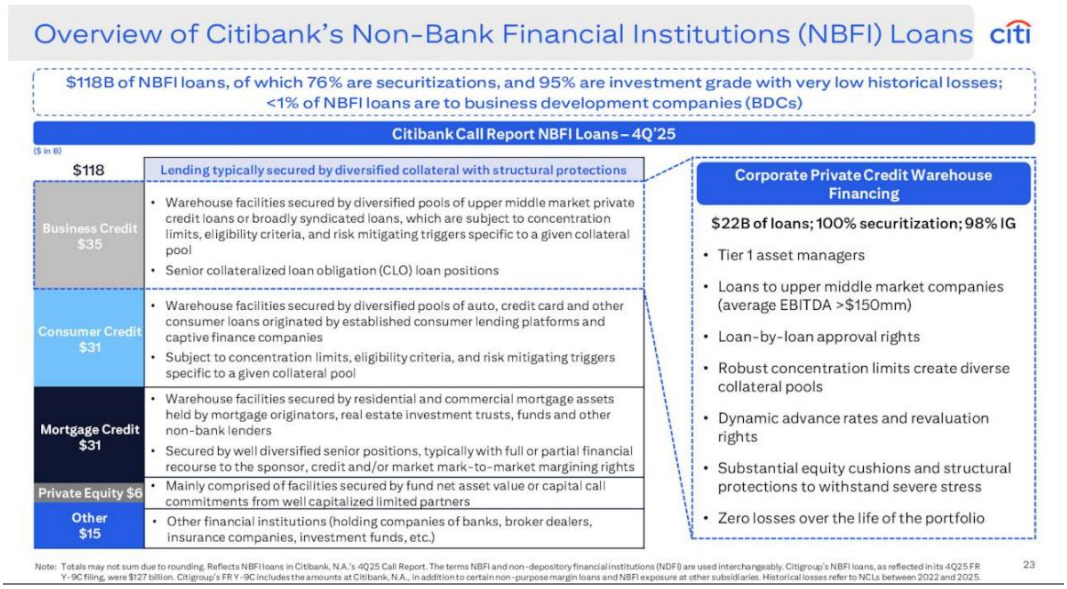
둘째, 강력한 원금 보장 장치를 들 수 있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업을 영위함에 따라 Citi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함. 동사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 기업들의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 지위와 경쟁 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 그리고, 이는 Citigroup의 뛰어난 건전성 지표로 확인 가능. 참고로 동사는 충당금 또한 충분히 적립 중.

셋째, 사모신용에 대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동사는 현재 사모신용에 대해서 220억 달러의 익스포져를 보유 중이지만 크게 리스크가 아니라 판단. 1) 동사 총자산 규모에 비해 해당 익스포져는 미미한 수준인 가운데, 2) 220억 달러 익스포져 중 98%가 투자 적격 등급이고, 3) 단순히 담보와 보증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실질적인 여신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이러한 관리 역량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구축되어왔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Citigroup 사모신용 리스크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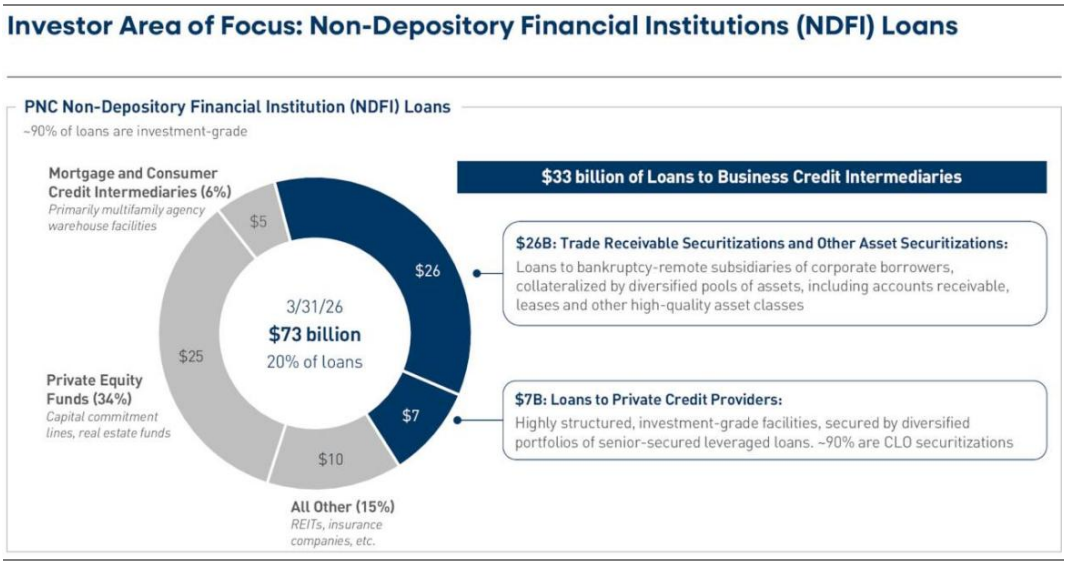
자료: Citigroup

3. PNC Financial – Zero Loss 전망

PNC Financial 또한 사모신용에 대한 상세 breakdown을 제공. NDFI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20%인 730억 달러이지만 (1Q26말 기준), 이 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신용과 유사한 구조는 총 330억 달러 규모. 이 중 260억 달러는 기업 향 여신으로 담보, 매출채권 등으로 원금 보장 역량이 탁월. 남은 70억 달러는 사모신용 공급자에게 제공되었으나, 투자 적격 등급인 것은 물론 동사는 선순위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여신도 다변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CLO로 구성. 즉, 동사는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이미 장기간 영업을 해 왔으며, 지난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손실을 경험한 적이 없음. 즉, 현재 보유 중인 자산들 또한 우량 자산으로 향후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

한편, Q&A 중 사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동사 CEO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위험한 자산은 리츠 관련 50억달러 규모로 언급.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심지어 전체 시장이 붕괴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여파가 은행으로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와 담보 매각에도 불구하고 낮은 원금 회수율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이 요구되는 만큼, 은행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음. 즉, 현재 사모신용은 과거 동사가 오피스 CRE관련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nothing).

PNC Financial 사모신용 Breakdown



자료: PNC Financial

중동발 리스크 관련 은행들은 견고한 경제를 기반으로 경기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언급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 이와 관련 JP Morgan과 BofA는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경제 기반은 튼튼하고, 이러한 추세는 3월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경기에 대한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언급.

JP Morgan –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결국 노동시장이 관건

동사 CFO는 1Q 중 은행이 파악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 연체율, 소비, 현금 보유량 등 모든 부문을 살펴봐도 견조한 경기 흐름만이 확인된다는 것.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일부 영향은 가능하지만, JP Morgan 고객을 기준으로 미국 가계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제한적인 만큼 실질적인 영향 또한 크지 않다고 강조.

다만, 현재까지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인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즉, 미국 경제 및 소비는 견고하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양상이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여파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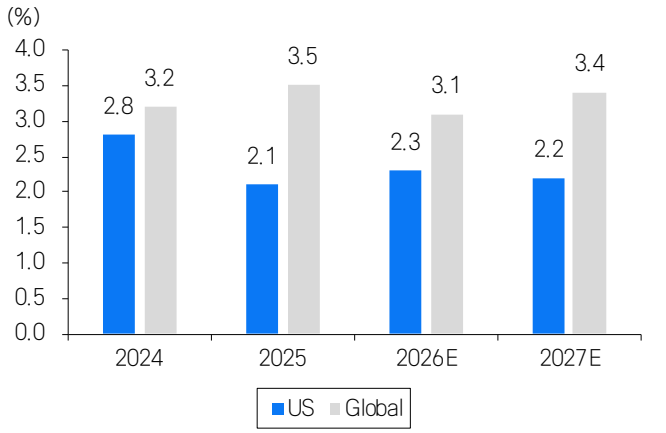
BofA – 유가 상승 여파를 현재의 견조한 경제가 모두 충분히 흡수 중

우선 BofA는 미국 및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일각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동사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3%를 소폭 상회하되, 27년에는 재차 2%대 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을 전망하였음.

한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기반이 이를 충분히 흡수 중인 것으로 언급. 동사는 소비자들의 부문별 결제금액 증감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1Q 중 전년동기대비 소비 금액은 6% 증가, 거래 횟수는 4% 증가세를 시현. 물론, 유가 상승으로 3월 중 유류 관련 비용이 16% y-y 증가했지만, 1Q 전체로 놓고 보면 유류 관련 비용은 3% 증가한 수준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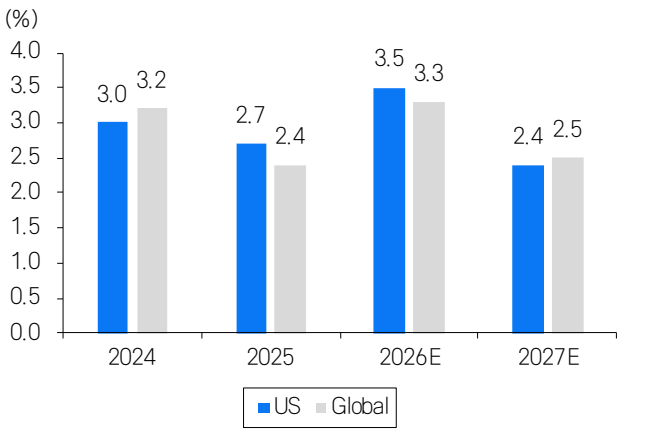
더 나아가, 소매 개인 고객이 아닌, 기업 고객들의 분위기도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언급. BofA가 보유한 기업 고개들은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년 전에 비해 경제 활동의 질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 특히, BofA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출 및 사업 다변화가 이뤄진 만큼, 향후 매크로 환경 변화가 비우호적으로 일부 이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창출 가능하다고 언급.

BofA Global Research –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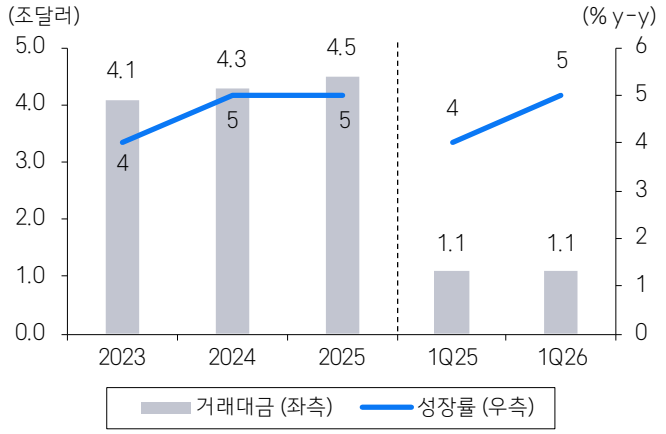
자료: Bank of America, 삼성증권

BofA Global Research – CPI 인플레이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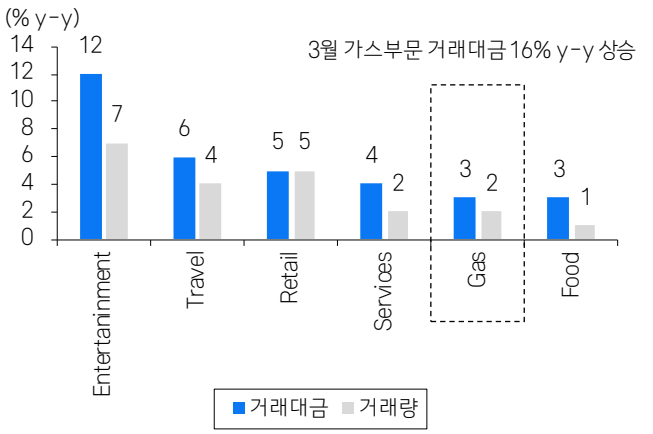
자료: Bank of America, 삼성증권

BofA 계좌 거래대금 및 성장률



자료: Bank of America, 삼성증권

부문별 BofA 1Q26 신용 및 체크카드 거래규모 성장률



자료: Bank of America, 삼성증권

26년 실적 개선 컨센서스 – 매크로 환경 변화 불구 11.1% 이익 개선 전망

26년 은행 실적 컨센서스는 당기순이익 기준 11.1% y-y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vs 1월 기준 컨센서스 7.9% 성장대비 개선). 1) 매출 성장률은 7.2%로 전년 4.1%대비 3.1%p 상승하고, 2)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1.1%로 전년 5.1%대비 6%p 높으며, 3) EPS 증가율 또한 17.5%로 전년 11.7%를 5.8%p 상회.

즉, 컨센서스는 1) 올해 은행들의 매출 성장 지속과 2) 영업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보다 빠른 이익 성장, 3) ROTCE의 개선세 지속, 4)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한 견조한 EPS 증가를 내포.

결론적으로,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 여파 또한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은행주는 기존의 우려 완화와 더불어 견조한 펀더멘털의 순항 및 주주환원의 추가 제고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5대 은행 매출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128,695	158,104	177,556	182,447	2.8	195,270	7.0
Bank of America	99,838	98,581	105,856	113,097	6.8	120,904	6.9
Citigroup	78,183	78,462	80,945	85,225	5.3	93,155	9.3
Wells Fargo	73,933	82,597	82,296	83,699	1.7	87,874	5.0
PNC Financial	21,120	21,490	21,555	23,099	7.2	25,687	11.2
합계	401,769	439,234	468,208	487,567	4.1	522,889	7.2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대 은행 순이익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37,676	49,552	58,471	57,048	(2.4)	60,887	6.7
Bank of America	32,416	26,515	26,973	30,509	13.1	33,758	10.6
Citigroup	17,690	9,228	12,682	14,306	12.8	19,809	38.5
Wells Fargo	13,322	19,142	19,722	21,338	8.2	22,317	4.6
PNC Financial	6,113	5,647	5,921	6,936	17.1	7,748	11.7
합계	107,217	110,084	123,769	130,137	5.1	144,518	11.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대 은행 EPS 추이 및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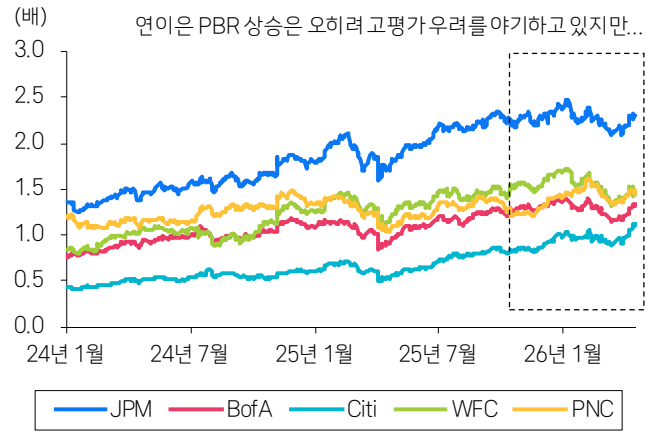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12.08	16.22	19.74	20.01	1.4	22.16	10.7
Bank of America	3.19	3.07	3.19	3.81	19.4	4.43	16.3
Citigroup	7.00	3.99	5.95	6.97	17.1	10.73	53.9
Wells Fargo	3.27	4.82	5.38	6.27	16.5	6.99	11.5
PNC Financial	13.87	12.79	13.77	16.59	20.4	18.74	13.0
합계	39.41	40.89	48.03	53.65	11.7	63.05	17.5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가 상승 여력 – 주주환원율 지속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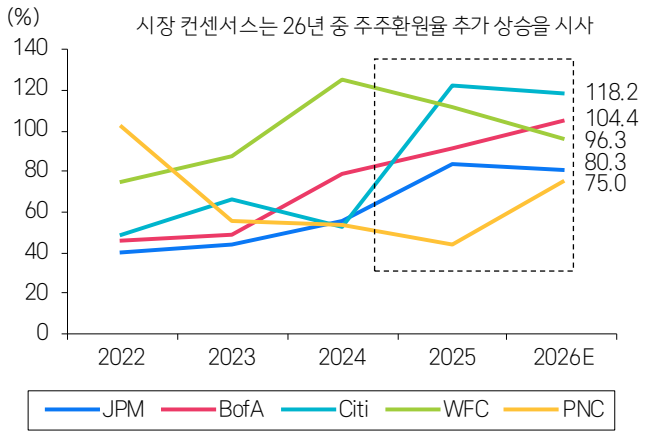
미국 은행들이 PBR이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만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상존. 이와 관련하여 향후 관건은 1) 자본비율 규제 완화의 확정, 2) 은행들의 26년 연간 가이던스와 같이 ROTCE의 상승 확인, 3) 경기 회복 및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회복으로 인한 실적 개선 모멘텀 강화 등이 될 것으로 판단. 참고로, 이들 은행의 올해 주주환원율 컨센서스는 70~120%로 나타남.

미국 은행 PBR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은행 주주환원율 추이 및 2026E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4월 1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1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